백두산

8호 - 주체91(2002)년 4월 22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반미반전운동을 전망성있게 벌여나가자

청년학생여러분 지금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는데서 한반도전체를 저들의 세력권에 끌어들이는 것을 관건적인 고리로 내세우고 북침을 겨냥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북에 대해 ≪악의 축≫이니 대량살상무기판매국이니 하는 갖은 악담을 늘어놓은 부시의 서울행각, 연이어 휴전선일대에서 근 70만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사장비들이 동원된 속에 전개된 한미합동군사훈련 그리고 북을 주되는 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한 ≪핵태세 검토보고서≫작성, 부시의 연이은 ≪악의 축≫망발. 이 모든 것은 미국이 북침핵전쟁시간표를 정밀하게 짜놓고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 모두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안전은 우리 민족자신이 수호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품고 반미반전투쟁에 과감히 내달릴 것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미반전운동을 전망성있게 벌여 쉼없이 더욱 줄기차게 타오르는 투쟁의 불길로 미국의 핵전쟁야망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초미의 과제로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운동권인사들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부시방한반대투쟁을 결산하는 좌담회를 갖고 범국민적인 반미운동을 전망성있게 계속 밀고나갈데 관해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청년학생들은 오늘의 이 격동적인 현실을 바로 알고 반미반전운동을 전망성있게 벌여나가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책무를 다해나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반미반전운동의 불길을 쉬임없이 지펴올림으로써 말그대로 온 이남땅을 반미함성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해야 합니다.

반미반전운동은 한갖 시류를 타고 전개되는 시한적 운동도, 주기적으로 출몰하고 주위환경에 따라 고조되는 감정적 운동도 아닙니다. 우리가 반미반전운동을 전망성있게 벌여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운동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벌여 반드시 알찬 열매를 맺자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계 민중들로 하여금 반미반전운동이 그들의 사활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라는 걸 똑똑히 인식시키는 겁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은 결코 북에 핵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는 간악한 흉계의 집중적 발로라는 것, 미국이 북에 불질하면 부득불 북은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이남은 미국때문에 전쟁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그것은 6.25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파국적인 것으로 될 것이라는 것, 견결하고 완강한 반미반전투쟁으로 미국의 북침야망을 분쇄하는데 전쟁의 발발을 막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6.15공동선언도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각계 민중들 속에 똑똑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반미반전운동에 동참해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학생들은 지금 사회각계에서 벌어지는 미군기지반환투쟁, 한강독극물사건관련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투쟁, 양민학살진상규명투쟁 등에 적극 동참하며 그 모든 투쟁들이 반미반전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지도록 하는데로 지향되도록 하는데서 선봉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반미투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투쟁의 현장들에서 침략자, 약탈자로써의 미국의 정체를 더욱 낱낱이 까발리며 그런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겨레에게 더욱 참혹한 핵참화를 덮씌우려 하고 있는데 관해 잘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각계 민중 모두가 외세가 강요하는 민족수난의 역사, 뼈아픈 고통과 굴종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미반전운동에 나서야 하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이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분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미반전운동을 더욱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운동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미반전운동을 전망성있게 벌여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가는 것과 함께 투쟁강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미국의 북침책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자는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미국의 북침광풍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그에 단호한 반격을 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난 부시방한반대투쟁때 벌였던 그림자투쟁과 동시다발집회와 같은 교훈 높은 투쟁방법들을 더 많이 창출구사하며 부시방한반대연석회의와 같은 조직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를 ≪학원자주, 민족자주쟁취를 위한 백만학도 집중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반미운동투쟁을 전개했던 것처럼 집중투쟁들과 공동연대집회들을 더많이 벌이고 미국상품불매운동과 같은 다채로운 운동들을 더많이 전개해야합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북침전쟁시간표까지 짜놓고 한반도에서 기어이 전쟁불집을 터뜨리기 위해 획책해도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벌여나가는 반미반전운동에 부딪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겁니다.

구국의 소리 - 주체91, 4월 18~19일

2 종합
-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기치
-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조별공연
- 평양선언에 세계 258개 정당이 서명
-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글발 제막식
- 화근은 제때에 제거돼야 한다
- 미국은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

4 노작
-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3)

6 세기와 더불어
- 6장 8절 라자구등판에서 (1)

8 칭송
- 우리 아버지(2)
- 해외동포예술인들이 부르는 태양찬가

9 노동신문 사설
- 모두다 선군시대의 ≪ㅌ.ㄷ≫열혈투사가 되자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주체의 영군체계를 확립하신 강철의 영장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4.19민중봉기가 남긴 교훈
- 4.19민중봉기, 그 나날의 미국
- 종군위안부문제 책임자처벌, 보상촉구

13 투쟁보도
- 한총련 이적성과 21세기
-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54돌기념
- 시민단체 선거 후보자 가시화
- 고이즈미 신사참배 파문
- 선언적 문구로는 노동문제 해결 불가능
- 대구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반발

15 운동강좌
-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2)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기치

《로동신문》 20일부는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발표 10돐에 즈음하여 론설을 실었다.

1992년 4월 20일에 발표된 평양선언은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라는것을 재확인하고 지배와 예속이 없는 사회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자면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이 반드시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론증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운동은 자주적운동이며 사회주의위업은 민족적위업인 동시에 인류공동의 위업이라는것을 명시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평양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10년간 세계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이 이 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고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세계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온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70개 당의 서명으로 자기의 탄생을 세계에 선포한 평양선언에 오늘 근 260개 정당들이 서명한 사실은 평양선언이 세계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으며 사회주의길,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이고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사회주의가 인류의 리상이며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사회라는것을 확인한 평양선언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지향과 리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인류공동의 투쟁강령이다.

평양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여기에 세계사회주의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의 밝은 길이 있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언제나 평양선언에 충실할것이며 세계사회주의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해 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20일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조별공연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여러 나라 예술단들의 조별공연이 19일 평양시내 극장들에서 진행되였다.

만수대예술극장에서는 우크라이나무용단, 말따음악가일행, 꾸바음악가, 인디아오디씨무용단, 뽈스까음악단, 말레이시아예술단, 끼르기즈스딴예술단, 일조음악예술교류회예술단, 일본메이랑음악단, 마다가스까르독창가가 공연하였다.

에짚트레다민속무용단, 단마르크음악가일행, 이딸리아음악가일행, 끼쁘로스음악단, 벌가리아예술단, 벨지끄민속전통음악단, 캄보쟈독창가일행은 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하였다.

로씨야명배우단, 우크라이나음악단, 아르메니야음악단, 스위스플류트4중주단은 모란봉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인도네시아그루수카르노예술단, 우즈베끼스딴예술단, 웨ㅌ남예술단, 싱가포르 타스예술단은 중앙로동자회관에서 공연하였다.

몽골예술단, 네팔무용단, 프랑스음악단, 벨라루씨음악단, 노르웨이예술단, 노르웨이음악단, 로므니아음악가일행은 동평양대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재미조선인예술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따쥐끼스딴예술단, 몰도바음악단, 인도네시아새예술단은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공연하였다. 중국, 로씨야, 몽골, 스웨리예, 프랑스교예단들과 뽀르뚜갈요술가일행은 평양교예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출연자들은 진리와 정의를 노래하며 민족적색채가 짙은 예술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20일

평양선언에 세계 258개 정당이 서명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10년이 된다.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에 온 여러 나라의 공산당, 로동당을 비롯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당수들과 대표들은 쌍무적 및 다무적접촉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켜 나갈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력사적인 평양선언을 채택하였다.

사회주의가 인류의 리상임을 확인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 그 숭고한 목적과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힌 평양선언의 발표는 세계사회주의운동력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오게 한 거대한 사변이였다.

선언은 지난 10년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과 인민들속에 급속히 파급되였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적변혁과정에서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였다. 선언이 채택될 당시 그에 서명한 정당이 70개였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258개에 이르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20일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글발 제막식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주체 91. 4. 25》라는 글발이 황해남도 해주시에 있는 조선의 명산인 수양산 자연바위에 새겨 졌다.

이 글발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칭송하고 있다.

글발 한자의 높이는 21메터, 너비는 10메터이며 획의 너비는 2메터, 깊이는 1메터이다.

글발제막식이 19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하철비서가 제막사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20일

화근은 제때에 제거돼야 한다

화근이란 말은 재앙의 근원이란 뜻이다. 듣기에도 귀맛이 없는 말이다. 그러니 화근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화근으로 지탄받는 사람은 바로 반민족반통일 사대매국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이회창이다.

한나라당 전 총재 이회창은 통일의 화근이다. 국민들이 이회창을 통일의 화근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은 그가 너무나도 우리 민중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악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우리 7천만 겨레가 그토록 갈구하는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세상에 널리 폭로된 바와 같이 이회창은 4.8합의서가 발표될 때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어올 것이 하나도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앞장에 서서 시비질을 했다. 그는 또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앞장에 서서 공동선언의 자주적 통일부문이 주한미군철수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의에 차서 비난했다.

이에 분격해 국민들은 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라며 이회창의 반통일적 행위를 입을 모아 강력히 비난했다. 그래도 명색이 야당총재를 지낸 사람이라면 국민들의 정당한 충고를 귀담아 듣고 자중해야 되겠으나 계속 통일에 역행하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이회창은 6.15공동선언발표후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할 때에는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 하면서 여당을 공격하고 북을 비난하는데 입을 다물지 않았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격했으면 이회창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했겠는가.

6.15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자주선언, 민족대단결선언, 통일지향선언이다. 그런데 이회창은 이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공동선언을 부정, 반대, 시비하면서 다가오는 통일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이런 반통일분자를 민족안에 어찌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악마의 입에서는 악한 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 이회창은 금강산에서 있었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했던 남측대표들이 부당한 구실을 내세워 회담을 결렬시키고 돌아왔을 때에도 아주 잘했다고 환영하는 ***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국민들이 이회창을 화근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또하나의 근거는 그가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배우고 익힌 것이란 반역질밖에 모르는 이회창이다. 지금도 그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상전들 앞에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잊어버리고 굽신거리며 놀아댄 꼬락서니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느끼하고 구역질이 나 3살때 먹은 젖까지 다 올라올 정도이다. 강아지가 집주인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듯 이회창은 미국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아첨을 하는 것도 부족해 주한미군을 구세주처럼 여기면서 미군이 한반도가 통일된 후에도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느니 대량살상무기니 뭐니하면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책동을 비호두둔하는 용납못할 행위를 자행했다.

미군에 대한 태도는 곧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고 통일과 분열, 평화와 전쟁에 대한 입장을좌우하는 기준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회창이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에 애걸한 것은 통일을 부정한 것이고 이 땅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내맡기려는 천추에 용납못할 망발이다.

이회창의 사대매국행위는 일본에 갔을 때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는 바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북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느니 신뢰성이 없다느니 부시의 ≪악의 축≫망발은 이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경고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북을 비난하고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두둔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회창의 망발에 분격한 한 재일교포는 ≪이회창이 반통일분자, 사대매국노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나쁜 놈인줄은 차마 몰랐다. 한마리 미꾸라지가 웅덩이물을 다 흐린다고 이회창을 그냥두면 우리 민족이 수치밖에 당할 것이 없다. 그를 빨리 정계에서 은퇴시키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우리 민족의 일치한 의사이기도 하다.

을사매국과 병술국치의 쓰라린 망국사를 체험한 우리 민족은 사대사욕의 민족적 수난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런데 부귀영화와 집권욕에 환장한 이회창은 민족도 통일도 안중에 없이 오직 사대매국행위만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자가 아직도 우리 민족안에 살아있다는 자체가 큰 수치다.

지금 사회계와 정계에서는 이회창의 반통일, 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전 총리 이수성은 이회창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하게 비난했고 재야인사 김모씨는 이회창을 그대로 두면 한반도에서 평화정착도 평화통일 등 우리 민족이 갈구하는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서울대생 최모군은 이회창은 을사오적을 능가하는 매국노이며 즉시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광주시에 사는 가정주부 홍모여인은 화근은 제때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며 이회창과 같은 우환거리를 그대로 두면 통일이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정말 옳은 말들이다.

이회창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사대매국행위로 얻는 댓가로써 부귀영화와 집권욕을 실현해보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역사와 민족앞에 지은 반역의 죄는 자자손손대를 이어서도 가시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회창이 제명을 다 살고 싶거든 이제라도 정계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회창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한나라당의원들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회창의 운명은 반통일사대매국행위를 자행한 것으로해서 이제 서산에 기울어진 배, 나날이 줄어드는 그믐달, 물에 뜬 거품, 풍전등화와 같다.

그래도 이회창과 운명을 같이 하겠는가. 아직도 한나라당을 탈당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의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망조가 든 한나라당에 남아 있어야 역사와 민족앞에 죄짓는 것밖에 없다. 역사는 언제나 사실을 증명하고 엄정한 심판을 내리기 마련이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이회창과 함께 비참한 운명에 처하기 전에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정의로운 길을 걷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은 통일의 화근 이회창을 정계에서 제때에 제거하는 여기에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통일의 문을 열고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회창의 정계퇴진과 한나라당해체투쟁을 반미투쟁과 밀접히 결부해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 민중이 힘을 합쳐 중단없는 투쟁을 벌여갈 때 반민족반통일 사대매국노 이회창은 민족의 명부에서 제거될 것이다.

구국의 소리 - 주체91, 4월 20일

미국은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무성 차관보 울프가 16일 기자회견에서 부쉬의 ≪악의 축≫ 발언은 ≪실제 있는 현상을 반영≫한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를 ≪미싸일을 파는 우려 대상국≫으로 몰아 또다시 ≪악의 축≫에 걸어 놓았다.

이것은 미국이 조미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아직도 털어 버리지 않고 여전히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며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기 위한 북침전쟁책동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것을 시사해 주는것이다.

≪미국의 국익이 위협을 받을 때 일방적인 행동을 결행할 각오가 되여 있다≫라고 한 울프의 폭언은 미국이 이미 작성공포한 북침핵공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경고신호로서 우리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수 없다.

지난 1월 말 부쉬의 ≪악의 축≫ 발언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되였던 전쟁접경의 긴장된 군사정세가 이번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시도로 하여 다시금 유발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문제의 엄중성은 울프의 발언이 최근에 북남사이에 합의된 공동보도문에 따라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데 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일시 동결되였던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는 긍정적분위기를 잘 살려 나가자면 그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랭전식사고방식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악의 축≫론을 다시금 들고 나오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계속 긴장격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이를 용납할수 있으며 수수방관할수 있겠는가.

미국이 조미관계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를 제압하기 위한 힘의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지 않을수 없다.

미국은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투철한 의지를 똑바로 알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론평 - 주체91, 4월 20일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3)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작 - 주체75(1986)년

3. 당대열의 조직사상적 공고화(1)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것은 당건설의 기본내용이며 당사업의 중심과업입니다. 당건설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당을 창건하고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당의 영도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업에서는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사업을 언제나 당사업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여 왔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만 당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할 수 있으며 전당의 강한 조직규율과 정연한 조직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노선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습니다. 우리 당이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진행한 주되는 투쟁은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들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합니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들을 극복하고 전당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우리 나라 역사발전의 특수성과 우리 나라가 처한 복잡한 환경으로 하여 한때 우리 당안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경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는 노예적 굴종사상이며 자기민족을 멸시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입니다. 사대주의에 물들으면 무턱대고 남을 숭배하고 남에게 추종하게 되며 덮어놓고 자기 것을 깔보고 남의 것을 떠받들게 됩니다. 사대주의자들은 예외없이 교조주의자들입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대주의의 치명적 해독성이 있습니다. 사대주의는 지난날 우리 민족의 발전과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헤아릴 수 없는 해독을 끼쳤습니다. 우리 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난날 나라가 망한 것도 사대주의 때문이였으며 초기 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한 것도 사대주의 때문이였습니다. 사대주의는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방해하였으며 우리 당건설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들은 자들은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에 의거하지 않고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려 하였으며 자체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 하였습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전쟁시기 더욱 심하게 나타났으며 전후 시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더는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전당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첫 시기부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으며 특히 전후시기에 주체를 세울 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않고 제때에 사상투쟁을 벌여 극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나라의 실정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사상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일군들속에서 모든 문제를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본따지 않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전당에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찼으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 안에서는 남을 쳐다보거나 남에게 굴종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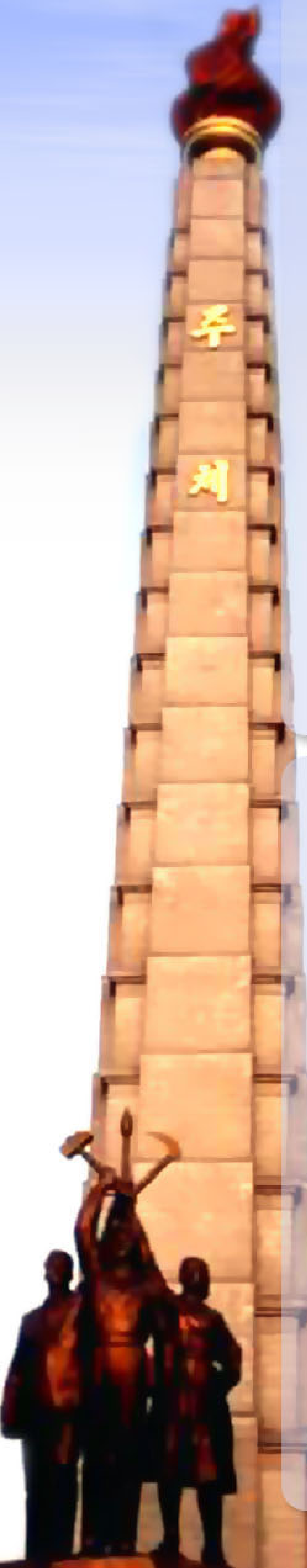
우리 당이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진행한 주되는 투쟁은 또한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이였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전당의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조직적 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당대열의 통일, 단결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종파주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고 혁명운동을 파괴하는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요소이며 그것은 부르조아사상, 특히, 개인영웅주의와 공명출세주의에 사상적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파주의자들은 공명을 떨치고 출세와 탐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 안에서 종파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당대열의 통일, 단결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나중에는 당의 존재 자체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당이 처음부터 반종파투쟁을 강하게 벌이지 안으면 안되었던 것은 초기 공산주의운동 안에 나타났던 종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나라의 해방을 맞이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925년에 조직된 당이 종파분자들의 파벌싸움과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해산된 다음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 나라에는 노동계급의 통일적인 당이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내외에 분산되어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계통적으로 검열할 수 없었으며 종파분자들과의 투쟁을 조직적으로 힘있게 벌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종파주의는 계속 남아있게 되었으며 종파분자들의 책동도 여러가지 형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종파주의를 극복해야할 역사적 과업이 해방 후 우리 당앞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은 될수록 많은 사람들과 단결하려는 목적에서 지난날 파벌싸움에 참가하였거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종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관대히 포섭하여 교양, 개조하는 방침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종파행동을 계속하면서 당의 통일, 단결을 엄중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종파분자들은 특히 우리 당 앞에 시련과 난관이 닥쳐올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당에 도전하여 나섰습니다. 종파분자들은 그들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는 적들과 결탁하여 반혁명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는 당과 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우리 당은 반당, 반혁명분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제때에 간파하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여 적발, 분쇄하였으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하였습니다. 우리는 종파분자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하는 것과 함께 종파의 사상여독을 뿌리뽑기 위한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우리 당은 반종파투쟁에서 주동분자와 피동분자를 엄격히 가르고 그들의 죄과에 따라 사람 당, 사건 당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주동분자는 철저하게 치고 피동분자는 포섭하여 교양하였습니다.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와 전후 시기에 있은 1956년 8월 전원회의, 그리고 1958년 3월 당대표자회의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회의들이였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반당, 반혁명 간첩도당을 적발, 숙청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전원회의와 당대표자회의를 계기로 종파의 마지막 잔당들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당대열의 조직적 단결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조선 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청산한 다음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 우리 당의 통일, 단결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 단결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당이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철통같이 뭉쳐 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단합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힘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허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행한 반종파투쟁은 매우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이였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 당이 진행한 반종파투쟁은 대내외 적을 반대하는 투쟁이였으나 그것은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 못지 않은 어려운 투쟁이였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반종파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주되는 요인은 우리 당의 핵심이 튼튼히 꾸려져 있는데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된 우수한 공산주의자들로 핵심이 튼튼히 꾸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

→

당건설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당을 창건하고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당의 영도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리칠 수 있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 각성을 높이고 당 안에서 비판과 자기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한 것도 우리 당대열을 분열시키려고 책동하던 종파분자들을 제때에 적발 숙청할 수 있게 한 주요한 요인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전당이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그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 단결된 위력한 당으로,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당으로 되였습니다. 우리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여 여기에 자만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우리 혁명이 시련을 겪을때 당 안에 숨어있던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이 당을 공격하여 나섰던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혁명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에서 예견하지 않았던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혁명이 시련을 겪을때 우리 당 안에서 변절자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내부에 아직도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밖으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가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사상 조류가 되살아나기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노동계급의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할 항구적인 사업입니다. 당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로 보나, 우리 당건설의 실천적 경험으로 보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혁명이 심화, 발전되는 데 맞게 더욱 강화하여야 하고 대를 이어가며 계속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핵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수 있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수 있으며 당 앞에 어떤 풍파와 시련 닥쳐와도 끝까지 당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심각한 교훈이며 귀중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고 어떤 복잡한 정세와 역경 속에서도 당을 진심으로 받들며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수호하며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건설의 실천적 교훈은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데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면서 당대열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건설의 실천적 경험에 비추어 당대열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며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 잘 해나가야 합니다. 당대열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며 당조직들을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은 당원들이 뭉친 조직적 부대입니다. 당대열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꾸리고 전당을 하나의 공고한 통일체로 만들 때에만 당이 인민대중을 영도할 수 있는 참다운 정치 조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당대열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간부는 당의 골간역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당은 간부들을 핵심으로 하여 조직되며 간부들의 역할에 의하여 당의 모든 활동이 보장됩니다. 결국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간부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간부를 선발, 배치하는 사업을 잘 하는 것입니다.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간부는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 할 높은 사상적 각오를 가져야 하며 당을 견결히 옹호, 보위하고 주체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간부는 또한 풍부한 지식과 높은 기술실무적 자질,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혁명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합니다.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높은 실무 능력, 고상한 인민적 품성, 이것이 우리 당이 요구하는 간부의 표징입니다.

간부사업에서는 간부의 표징을 원만히 갖춘 사람들을 간부로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간부를 파악하고 선발, 배치하는데서 본인을 위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람을 겉모습만을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을 통하여 파악하고 검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사람에 대한 평가를 옳게 할 수 있으며 충분히 파악되고 검열된 사람들을 간부로 등용할 수 있습니다. 간부대열의 질적 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은 간부대열을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간부대열을 꾸리는데서 노동계급 출신 간부의 비중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며 따라서 노동계급은 계급적 신분상으로 볼 때 우리 당간부의 기본표징입니다. 당간부대열을 꾸리는데서 노동계급 출신 간부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당이 자기의 계급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노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간부의 기본원칙을 노동계급 속에 두어야 하며 노동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노동자들, 특히 기간공업부문의 핵심 노동자들을 간부로 많이 등용하여야 합니다.

간부대열을 꾸리는데서 노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간부는 경험이 많고 문제처리에서 노숙하며 젊은 간부는 새 것에 민감하고 혈기 왕성하며 진취성이 강합니다. 간부대열을 노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합하여 꾸려야 우리 당을 노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패기와 정열이 넘쳐 투쟁하는 활력있는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간부대열을 노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합하여 꾸리는 것은 당건설과 혁명발전의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 온 노간부들이 자기능력을 다 발휘하여 계속 일을 잘 하도록 적극 도와주는 한편 주체교육을 받고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된 젊은 일군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여야 합니다.

간부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간부를 파악하고 선발, 배치하는 것은 당사업의 첫 공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쇠붙이를 공기 속에 그냥 내버려두면 녹이 슬어 못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간부로 등용한 다음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지 않으면 사상적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나중에는 혁명대오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간부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여야 하며 간부의 혁명화는 대중의 혁명화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간부들을 혁명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모든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노쇠되지 않고 변함없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지칠 줄 모르는 혁명적 투지와 열정을 가지고 충실히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높이는 것은 당의 영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간부들이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 결정적 조건입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간부들의 자질 문제는 더욱더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 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간부들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소유하며 자기 사업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특히 책임간부일수록 학습을 더 많이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의 학습정형을 정상적으로 파악하고 간부들이 학습을 잘 하도록 통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정된 한 달 강습체계를 잘 운영하여 모든 간부들이 해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규 교육망에서 학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간부들을 계획적으로 재교육하며 간부학교 같은 것을 널리 조직하여 간부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간부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간부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우리 간부를 전망성있게 키우는 것입니다. 후비간부양성사업을 잘 하여야 날로 늘어나는 간부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으며 간부대열의 질적 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지 사업을 통하여 후비간부를 파악, 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는 한편 간부 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거기에서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간부를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내일 계속)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 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이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8. 라자구등판에서(1)

일본군대의 도입성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었다. 친일적인 지주들은 일본인들을 맞기 위하여 벌써 기발까지 준비하였다. 구국군은 량강구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맹탄장부대에는 산을 끼고 초원이 있는 라자구, 왕청 방향으로 퇴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도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구국군과 함께 안도를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을 채택한 것이 바로 량강구에서 열린 병사공작위원회 회의였다. 총적인 지향은 왕청으로 활동거점을 옮기는 것이지만 당분간은 퇴각하는 구국군부대들과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우사령부대도 안도에서 라자구로 철수하였다.

우리가 북만으로 갈 준비를 한창 다그치고 있을 때 철주동생이 나를 만나려고 량강구에 찾아왔다.

≪형, 나두 형님네 부대를 따라가구싶어, 형님 없이는 토기점골에서 더 못살겠어요.≫

동생은 내가 묻기도전에 찾아온 용건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동생이 우리 부대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심정은 나도 리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사하골짜기에서 남의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감수성이 예민한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로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마저 토기점골을 떠나면 영주는 어떻게 하니? 그 애가 고독해서 견디지 못할텐데.≫

≪둘이나 남의 집 밥을 먹으니 미안해서 못견디겠어요. 막내 혼자만 있으면 덜 미안할 것 같애.≫

나는 철주의 말이 리치에 맞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동생의 나이가 열여섯살이니 총을 메워주면 부대를 따라다니며 군인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철주는 나이에 비해 몸집도 크고 체격도 좋았다. 하지만 아직 뼈가 채 여물지 않아서 유격대의 짐이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철주는 안도지구에서 공청사업을 추켜세워야 할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고 있었다.

≪네가 이년이나 삼년후에 그런 청을 한다면 형은 너의 청을 선뜻 받아들일게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청을 들어줄 수가 없구나. 좀 고생스럽고 고독스럽더라도 몇해만 참아다구.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도 하고 계절로동 같은 것도 하면서 공청 사업을 좀 본때있게 내밀어보아라. 자하활동도 무장투쟁 못지 않게 중대한 사업인데 그걸 무시하면 안되지, 공청사업을 하다가 때가 되면 혁명군에 오너라.≫

나는 철주가 떼를 쓰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구슬려보았다. 그러다가 그를 데리고 못가에 있는 객주집에 갔다. 문풍지소리가 궁상스럽게 붕붕거리는 썰렁한 방안이였다.

나는 술과 안주를 청하였다. 싸늘하게 식은 언두부접시 두개, 그사이에 놓은 술병 하나. 그것을 보더니 철주는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이였다. 동생은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잔의 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벌써 짐작하고 있는 모양이였다.

≪철주야, 너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 형을 용서해다구, 낸들 왜 너를 데리고 다니구싶은 마음이 없겠니, 너를 떼두고 가자니 내 가슴도 아파서 찢어질 것만 같구나. 그렇지만 철주야, 섭섭한대로 우리는 여기서 또 헤어져야겠다.≫

나는 술기운의 덕으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입에 쉽사리 옮길수 없는 말을 단숨에 해버리였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오르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내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밖에 나오자 철주도 마시던 술잔을 내버린채 나를 따라 일어섰다.

≪알겠어요. 형!≫

이 한마디와 함께 철주는 뒤로 다가와 내 손을 소리없이 잡았다놓는 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동생과 헤어졌다. 그리고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다.

그 음산하고 처량한 못가의 가을을 회상할 때마다 그날 내 손을 살그머니 잡았다놓고 가던 동생의 손을 더 오래 그리고 더 뜨겁게 잡아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군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그것은 너무나 쓸쓸한 작별이였다.

만일 그때 내가 철주의 청을 들어주었더라면 동생은 스무살도 채 되지 못한 나이에 일찍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실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가버린 인생이었다.

철주는 열 살을 넘기기 바쁘게 혁명조직을 따라다녔다. 무송에 있을 적에는 새날소년동맹 선전책으로 활동하였고 소사하에 와서는 구공청위원회 비서로 사업하였다.

량강구에서 나와 헤어진 철주는 그후 수많은 공청원들을 키워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시키었다. 그는 자청해서 어려운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다. 그가 관계하였던 두의순이 지휘하는 반일부대는 일본군의 간도토벌대와 잘 싸웠다고 한다.

그후 철주는 안도 반일부대 공작부장의 중임을 지니고 연길현 부암동 장재촌 사슴페에 있는 서규오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다. 서규오는 반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조선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적대시하는 성미가 괴벽하고 고집이 센 두령이었다. 그도 초기에는 조선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서규오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랭대하기 시작한 것은 부암동의 반일부녀회원들이 그가 첩으로 삼으려고 억류해두고 있던 공청원처녀(조선녀자)를 탈환해온후부터였다. 일단 그렇게 걸려들면 어떤 여자든지 서규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서는 무사할 수 없었다.

서규오는 그런 방법으로 자주 여자를 갈아대였다.

부녀회원들이 공청원녀자를 탈환해온후부터 조선사람들은 서규오의부대에 발을 붙일수가 없었다. 과거에 서규오와 너나들이로 허물없이 지내던 사람까지도 그의 곁에 가서 붙지 못하였다. 서규오는 상사병으로 고민하면서 부하들을 시켜 조선사람들을 박대하고 탄압하였다.

이런 때에 철주동생이 한의자격을 가지고 있는 림춘추동무를 데리고 서규오의 부대에 찾아갔다.

≪두령님이 병이 심하다기에 문병을 하러 왔습니다.≫

철주가 류창한 중국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였지만 서규오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조선사람은 보기도 싫고 조선사람들과는 말조차 하기 싫다는 것이였다.

≪두령님 병을 떼볼가 하여 용한 의원 한분을 데리고 왔는데 한번 치료를 받아 보지 않겠습니까?≫

철주가 다시 이런 말을 해서야 서규오는 조금 귀맛이 당겨 용한 의원이라면 진찰을 한번 받아보자고 하였다. 그는 림춘추동무의 침을 며칠동안 맞고나서 편두통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림의원덕으로 골통속에 숨어들어왔던 잡귀를 쫓아버렸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철주는 서규오부대에 눌러앉아 반일병사들과의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였다.

훗날 우리의 방면군에 편입된 서규오는 10련대장으로 임명되어 최후까지 잘 싸웠다. 한때 아편과 여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며 난봉을 부리던 그다 혁명군에 편입된후에는 공산당에까지 입당하였다. 내가 부대의 이름으로 입당을 축하한다고 말하자 그는

청년들을 유격대에 입대시키시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

→

≪군지휘동지, 나는 오늘 입당하면서 군지휘동지의 아우를 생각했습니다. 철주가 아니였더라면 나는 오늘과 같은 날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철주가 림춘추동무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병을 떼주던 사실과 자기가 반일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꾸준히 이끌어주던 사실을 옛말같이 이야기해주는 것이였다.

1935년 6월에 청주는 처창즈근방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나는 철주가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경박호반에서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큰 강이나 호수를 보기만 하면 동생생각을 하군 한다.

철주까지 전사하고나니 막내동생은 의지가지할데 없는 고아가 되었다. 김정룡이네가 처창즈유격근거지로 들어간 다음부터 동생은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에서 아이보개도 하고 심부름꾼노릇도 하면서 밥을 얻어먹었다. 관동군이 나에 대한 ≪귀순≫공작에 써먹으려고 나의 연고자들을 닥치는대로 잡아들이던 때였으므로 막내동생은 자기의 이름자와 출신마저 속이고 동북3성은 물론, 중국 관내의 도회지들과 농촌들에까지 들락날락하며 정처없는 류랑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다나니 그는 베이징에도 얼마간 가 있었다.

나도 해방후 일본경찰들이 남기고 간 문건에서 동생의 수배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았다.

막내동생은 신경맥주공장에서 일했을 때 고향이 너무 그리워 조국에 나와서 석달가량 지냈다. 그때 그는 검은 양복차림에 흰구두를 신고 만경대에 나타났다.

반일부대공작을 진행하시는 김철주동지

그 차림새가 어찌나도 의젓하고 늠름해보였던지 우리 할아버지는 막내손자가 무슨 벼슬자리라도 얻어가지고 자수성가를 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지경이였다. 그때 막내동생은 조부모님들에게 시름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장춘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였다. 경찰이 사진까지 내돌리며 지명수배를 하고 있던 때여서 그는 고향에 나와서도 만경대에 있지 못하고 첫째 고모네 집에서 숨어지내다가 다시 만주로 들어가버리였다.

량강구를 떠난 반일인민유격대의 40명 대오는 돈화와 액목을 거쳐 산발을 타고 남호두방면으로 북상하였다. 우리 부대가 나의 ≪머슴군≫시절이 흘러간 그 유명한 푸르허마을에 들려 정치공작을 한 것도 이때이며 돈화현할 바령부근에서 돈도선(돈화-도문)철도부설공사에 동원된 일본군수송대와 격전을 벌인 것도 이 무렵이였다. 이 전투가 있은 후 나는 돈화현 두도량자에서 고재봉도 만났다.

적들의 폭압이 심한 사도황구를 떠나 두도량자로 활동무대를 옮긴 고재봉은 지하조직이 운영하는 농민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두도량자에서 돈화현성까지는 30리밖에 안되였다.

나는 그때 두도량자에서 고재봉의 어머니도 만나보았다.

우리는 일본군소송대를 들이치고 로획한 밀가루를 집집마다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인민들과 함께 먹었다. 그 전투에서 로획한 광목천은 농민학원에 주어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도록 하였다.

두도량자를 떠난 우리 부대는 다시 북상하여 관지 부근과 남호두지방에서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한 다음 왕청지구에 들어가 당, 공청 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료해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얼굴을 익히였다. 이것은 장차 왕청에 활동거점을 잡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왕청에 가서도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늦추지 않았다. 나는 리광의 별동대가 총 몇자루를 해결하려고 잘못 건드려놓은 관보전부대를 만나려고 리수구에 찾아갔다. 그런데 관보전은 벌써 항일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관영장을 만나 왕청동무들을 대신하여 그에게 사죄도 하고 공동투쟁을 위한 방도도 의논하면서 지난날 조, 중 무장부대들사이에 일시적으로 조성되였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려고 하였다.

관보전은 달아났지만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만나보려고 련락을 보냈더니 100명쯤되는 반일부대병사들이 돈화현성에서 일본군대를 족친 **김일성**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보자고 하면서 우리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앞에서 왕청별동대가 무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영장부대의 병사들에게 손을 댄 것이 비우호적인 처서였음을 인정하고 조중인민이 공동투쟁과 반일부대의 사명과 관련된 허심탄회한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에 대한 반일부대사람들의 반향이 좋았다. 코산이라는 지휘관은 그 연설을 듣고나서 자기도 관보전처럼 항일을 포기할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옳은 길을 걷겠다고 하였다. 그 결의대로 그는 반일전선에서 잘 싸웠다. 왕청에서 큰 두통거리로 되였던 반일부대와의 화해는 이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던 좌경적편향을 없애고 그들을 항일련합전선에 더 많이 인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자구에서 반일병사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때 동녕현성에 집결된 구국군부대들은 쏘련을 경유하여 중국관내에로 퇴각할 차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국경밖으로 달아나려고 서두르는 구국군의 도주를 막고 그들을 반일전선에 튼튼히 묶어놓으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격투쟁앞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반일부대들을 격파하기 위하여 사방에 분산되였던 적들의 ≪토벌≫력량은 몇백명밖에 되지않은 우리의 무장력을 단숨에 질식시켜버릴수 있었다. 적아의 력량관계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질수 있었다.

그 당시 일본군은 만주의 군소도시들을 다 점령할 계획밑에 도처에서 반일무장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소재지까지 다 점령하려고 획책하였다.

회의에는 나와 리광, 진한장, 왕윤성, 호진민, 주보중을 비롯하여 30-40명이 참가하였는데 나와 리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진한장, 왕윤성, 주보중은 중국측을 대표하였다.

회의의 기본안건은 구국군의 도주를 막고 반일련합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문제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왕청유격대의 과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과오의 시초로 된 것은 왕청부대에서 발생되었던 ≪김명산사건≫이였다. 김명산은 원래 장학량군시절이 ≪보위단≫에 있다가 9.18사변후 6명의 중국인부하를 거느리고 왕청유격대로 반변해온 조선사람이였다. 그는 명포수출신으로서 싸움을 잘하였다. 왕청부대동무들은 그가 반변해오자 금덩이가 굴러들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반변해온 중국인대원 6명중 한명이 적통치구역에 2정찰을 나갔다가 대감자음식점에 들려 값도 치르지 않고 호떡 한그릇을 먹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에게는 음식값을 물어줄 돈이 없었다. 그는 부대에 돌아와 자기가 돈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고 온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보고 하였다.

현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좌경분자들은 유격대의 명예를 훼손시킨 해독분자라는 감투를 씌워 그 중국인대원을 총살하였다. 현당군사부의 조치로 왕청에서 처형당한 중국인대원들의 수는 무려 10여명에 달하였다.

김명산과 함께 반변해들어왔던 나머지 중국인대원들은 이러한 공포분위기에 놀라 부대를 탈출하여 마촌구근방에 주둔하고 있는 관보전부대에 찾아갔다. 유격대가 중국사람들을 함부로 총살한다는 그들의 선전을 듣고 위험을 느낀 관보전은 유격대의 주둔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골짜기에 부대를 이동시켜가지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할 기회를 노리였다.

10월 혁명기념일이 되자 왕청사람들은 날창과 몽둥이와 같은 원시적인 무기들을 휴대하고 행사장에 몰려들었다. 그들이 이런 유치한 무기들을 들고 기념식장에 나타난 것은 행사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였다.

기념식장에 사람들이 집결하는 것을 자기네 부대에 대한 공격준비라고 잘못 판단한 관보전은 분개하여 자기의 수하에서 참모장의 직책을 가지고 구국군대원들에 대한 교양과 통일전선운동을 추진시키고 있던 유격대공작원 김은식과 홍해일, 원홍권 등 여러명의 조선사람들을 총살하였다.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와도 같은 역습이였다.

그후 투쟁을 포기한 관보전의 부대는 삼삼오오 떼를 지어 적의 통치구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왕청부대는 관부대의 투항을 막는다고 하면서 몇차례에 걸쳐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무장을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고 하여 관부대의 투항병 몇 명을 죽이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관보전부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복수전을 시작하였다. 조선청년들 중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붙들어다가 총살하였다. 조직된지 몇 달되지 않은 왕청유격대는 반일부대에 포위되어 많은 희생을 내였다.

반일부대와의 관계에서 발로된 이와같은 미숙성과 무분별성은 조중관계를 급격히 약화시키고 조선 혁명앞에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을 파놓았다.

회의 참가자들은 반일부대와의 관계를 망쳐놓은 다음에도 그 과오의 엄중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무슨 복수를 운운하는 왕청유격대의 지휘관들을 가차없이 비판하였으며 장시간에 걸치는 론의를 거쳐 구국군과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행동조례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공통적인 리해에 도달하였다.

(내일 계속)

시

우리 아버지 (2)

재 러시아동포 정일심의 마음을 담아

초원에 흩날리는 풀씨처럼
이국의 거친 들가에
정처없이 헤매이던 몸
서러운 이국살이인생이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낟알을 털어낸 밀짚단도
실어갈 주인이 있건만
비가 와도 들어설 처마가 없고
바람 차도 불러주는
목소리 하나 없는
차디찬 타향살이
외로이 홀로 울던 봉선화인생

나라찾는 싸움에
피 한방울 바친적 없는
그를 부르시어
혁명무력의 첫 탱크부대 지휘관으로
키워주신 주석님

준엄했던 전쟁 3년을
주석님께 다 떠맡기고
전쟁 열흘만에
너무도 일찍 떠나간 저의 남편이건만
영웅으로 애국열사로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고

끝도 모를 세상천지
하나의 모래알 같은 우리 가족
주석님은 끝내 찾아주고
품어주셨습니다

40년 세월이 흐르도록
남편을 못잊어 회억하시며
동방의 빛나는 우리 나라
조국을 사수하는 일꾼이 되라고
몸소 안동수라 지어주신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시던 주석님

묘향산에서 만난 기념으로 향산
진달래, 목란꽃향기 담아 향진, 향란
아들딸이름까지
주석님은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기 전에
자식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 대를 이어준 핏줄기!
조선사람의 넋이며 생명!
주석님 찾아주시고
남편의 붉은 피가 스민
내 나라 내 조국!

울었습니다
언어도 풍습도 생활도 다른
타향만리에서
남편도 없이 세 자식을 키우며
남몰래 가슴 속에 피눈물로 맺힌
40년 세월을 울었습니다

험한 세월에도
자식들을 잘 키웠다고
영웅의 아내, 혁명가의 아내답게
남편앞에도 일심
조국앞에도 일심
한마음 변함없이 산
그것이 고맙다고 하신 주석님
그런 의미에서 정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 무슨 말로 감사 드리오리까
무슨 말로 이 심정 아뢰오리까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평범한 여인에게
그처럼 값높은 이름 지어주시니
봄날의 눈석이처럼 흘렀습니다
타슈켄트의 뙤약볕에도
녹일 수 없었던 가슴속 설움이

흠모

해외동포예술인들이 부르는 태양찬가

평양에서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극장무대들에서는 해외동포예술인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부르는 태양찬가, 위인송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수도의 이름있는 평양대극장에서 재일조선인예술단이 공연무대를 펼쳤다.

예술인들은 서장 ≪태양절에 드리는 노래≫에서 태양절을 맞으며 70만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녀성중창 ≪꿈결에도 그리운 수령님의 품≫에서 가수들은 주석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을 잊지 못하는 재일동포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무대에는 총련조직에서 생활하는 재일동포들의 자랑과 긍지를 형상한 노래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 조선 민족의 민족적풍습과 생활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무용 ≪장기놀이≫등이 올랐다.

청년중앙회관에서는 재중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출연자들은 노래와 춤 ≪태양절을 노래합니다≫, 노래 ≪우리 수령님≫, 무용≪내 조국의 밝은 달아≫등의 종목들을 무대에 올려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의 녀성독창가수가 주석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속에 부르는 노래 ≪우리 수령님≫은 관람자들의 눈굽을 적시였다.

이 예술단의 시와 무용 ≪내 조국이 보입니다≫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기에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의 미래는 찬란하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공연한 재미조선인예술단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막을 올렸다.

녀성독창가수는 노래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를 격조 높이 불렀으며 국제콩클수상자인 녀성피아노연주가는 노래 ≪내 고향의 정든 집≫을 세련된 기법으로 정서적으로 연주하였다.

북재주 ≪통일의 북소리≫에서 출연자들은 조선 인민의 꺾을수 없는 통일지향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모두다 선군시대의 ≪ㅌ.ㄷ≫열혈투사가 되자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4월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 깊게 기념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갈 신념의 맹세가 뜨겁게 불 타고 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선군시대의 열혈투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선군시대의 열혈투사가 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한별로 높이 받들어 모신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견결한 수령옹위투사, 절해고도에서도 혁명적지조와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불굴의 투사가 된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였습니다. ≫

일찌기 ≪ㅌ.ㄷ≫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보람찬 시대에 들어섰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와 세기는 바뀌였지만 ≪ㅌ.ㄷ≫의 열혈투사들이 지니였던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 자기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사생결단의 각오, 단두대에서도 자기의 혁명적지조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은 고결한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간직되여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며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가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치고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는 길은 다진 맹세 변치 않고 한별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 온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 나가는 21세기 열혈투사가 되는데 있다.

참다운 ≪ㅌ.ㄷ≫열혈투사가 되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숭고한 시대적사명감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 모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기를 펼쳐 놓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한별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시원을 열어 놓은 여기에 혁명선렬들이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 올린 가장 큰 공적이 있다.

21세기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이다. 위대한 격동의 시대에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전위투사들의 대오가 있어야 한다.

화전의 언덕에서 수령님을 따라 혁명할 맹세를 다진 투사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수령을 옹위하는 철벽의 성새가 되여 자기 령도자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왔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주체시대의 앞길을 열어 나가는 우리 혁명대오는 수천수백만을 헤아린다.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드는 견결한 열혈투사가 될 때 이 세상에 뚫고 나가지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새 세기의 ≪ㅌ.ㄷ≫열혈투사의 대부대가 있는 한 이 땅우에는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이 보란듯이 일떠서게 될것이며 주체혁명의 새 시대는 끝없이 빛나게 될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21세기 열혈투사가 되는것은 백두의 혈통을 굿굿이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백두의 혈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다.

우리가 백두의 혈통을 굿굿이 이어 나간다는것은 곧 ≪ㅌ.ㄷ≫의 전통을 이어 나간다는것이다. 우리 혁명의 승리와 영광의 년대기마다에 높이 휘날린 기발도 ≪ㅌ.ㄷ≫가 들었던 혁명의 붉은기이고 조선의 혁명가들이 력사적으로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도 다 ≪ㅌ.ㄷ≫의 열혈투사들이 물려 준 고귀한 혁명정신이다. ≪ㅌ.ㄷ≫의 전통을 떠나서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자고 하여도 수령의 두리에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뭉치였던 혁명의 1세들의 혁명적신념을 깊이 간직해야 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대로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을 다그쳐 나가자고 하여도 ≪ㅌ.ㄷ≫가 들었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제국주의압살책동으로부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는 길도 ≪ㅌ.ㄷ≫의 열혈투사들이 지녔던 견결한 반제투쟁정신과 혁명적원칙성을 변함없이 견지해 나가는데 있다.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의 혈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굿굿이 이어 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 백전백승의 선군시대를 펼쳐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결의 인간,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충실하게 받들어 나가는 실천가, 장군님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불변의 동지가 바로 21세기 ≪ㅌ.ㄷ≫열혈투사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ㅌ.ㄷ≫열혈투사들로 튼튼히 준비하는 여기에 백두의 혈통을 새 세기에도 변함없이 견결히 옹호고수하는 길이 있고 수령의 전사, 애국충신으로 한생을 빛내이는 길이 있다.

우리는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 온 그 숭고한 넋을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순결하게 받드는 진짜배기열혈투사로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숭배심을 지니고 장군님을 진심으로 받들어 나가는 량심의 인간, 의리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ㅌ.ㄷ≫의 전위투사들은 자그마한 사심과 공명도 없이 자기 령도자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 온 진정한 동지들이였고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 한 혁명전우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을 의무이기전에 량심으로, 영예로 간직한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넋은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우리 인민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떻게 받들어 나가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 주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동지애의 노래≫에 깃든 숭고한 정신을 깊이 체득하고 우리 혁명의 1세대들처럼 티끌만 한 사심도 없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한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ㅌ.ㄷ≫의 열혈투사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고귀한 유산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는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호보위한 혁명투사들의 그 정신, 그 신념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다. 우리는 절해고도에 홀로 있어도 수령만세를 높이 부르며 죽음판에서도 최고사령부를 찾아 오는 견결한 혁명투사가 되여야 한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참된 충신이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사상과 뜻을 같이 하며 혁명의 천만리길을 굿굿이 걸어 나가는 사람이 21세기의 열혈충신이다.

그 어떤 엄혹한 시련이 닥쳐 와도 자기의 계급적본분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는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ㅌ.ㄷ≫의 기치는 견결한 반제계급투쟁의 기치이며 ≪ㅌ.ㄷ≫의 성원들은 철저한 계급투쟁관점의 체현자들이였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어도 변할수 없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자기의 계급적자각과 본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ㅌ.ㄷ≫의 전위투사들처럼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과는 사생결단하여 끝까지 싸우는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도 가지지 않고 혁명의 리익, 계급의 리익을 견결히 고수해 나가게 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우리의 사회주의계급진지를 백방으로 다져 나가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꽃 피워 나가는 투쟁에서 실력가,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우리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 온 갻트. 드갻성원들은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목숨 바쳐 실현해 간 완강한 실천가들이였다. 그들은 시를 쓰라면 시를 쓰고 노래를 지으라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총도 잘 쏘고 대중동원사업도 능란하게 할줄 아는 만능의 정치활동가, 유능한 군사지휘관들이였다.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철쇄를 마스는 마치가 되여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앞장에서 실현해 나간 ≪ㅌ.ㄷ≫열혈투사들의 숭고한 모습은 오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 세기 혁명적진군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귀감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는 말로써가 아니라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실천가형의 혁명가를 요구한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오늘의 시대에서 실력이 없으면 ≪낡시군≫이 되고 실력이 있어야 성공의 열매를 거둘수 있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높은 정치실력과 무한대한 정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대국건설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 나고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사업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대로 막히는데가 없이 척척 풀어 나가는 실력가가 되여야 한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학습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에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실천으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따라 배워 당의 로선과 방침을 빛나는 현실로 전변시켜 나가야 한다.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기는 비상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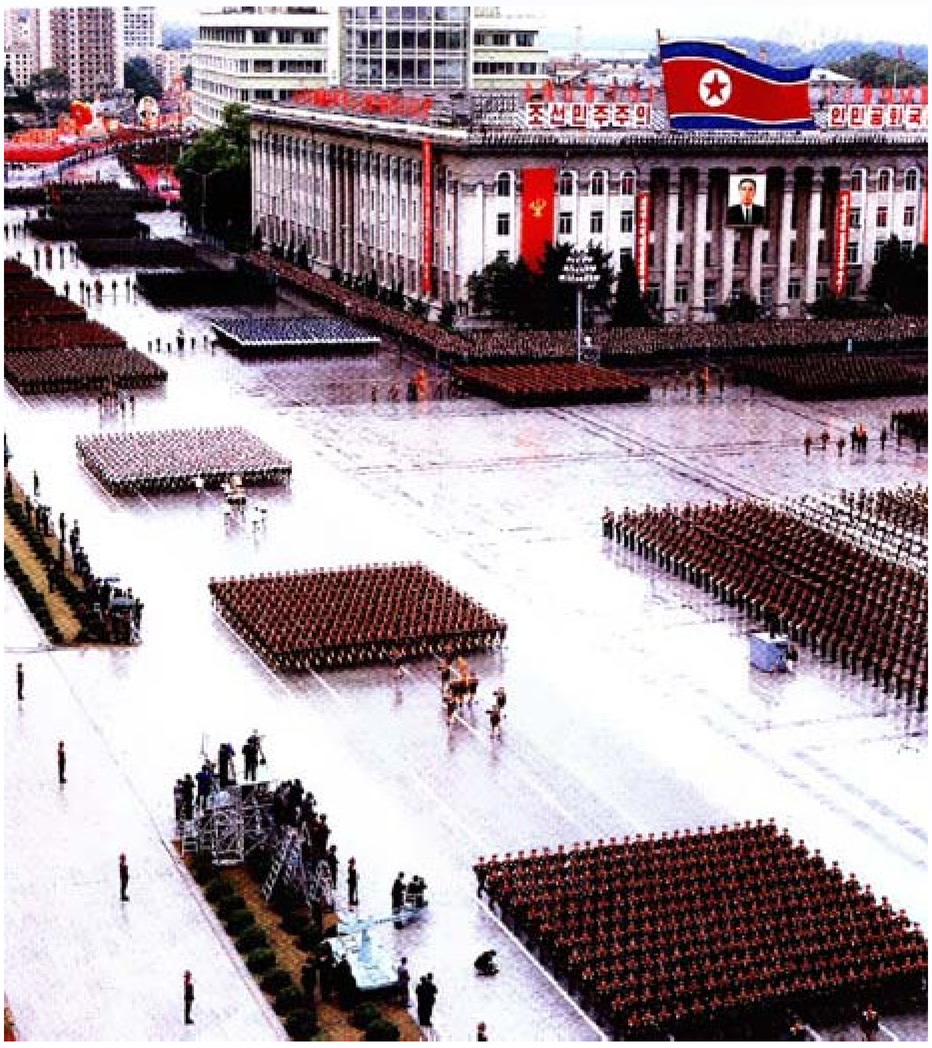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ㅌ.ㄷ≫열혈투사들의 숭고한 넋을 그대로 이어 받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갈것이다.

(끝)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강철의 영장이시다.
제1회 - 학사 한원용선생 주체91, 4월 20일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명령 일하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주체의 영군체계를 확립하신 강철의 영장

안녕하십니까.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끝없는 격정과 환희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경축한데 이어 우리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백두산 3대장군의 손길아래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모습에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건군 70돐을 맞으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강철의 영장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기념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명령 일하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주체의 영군체계를 확립하신 강철의 영장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축하문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명령 일하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주체의 영군체계를 확립하시여 군건설의 최성기를 마련하셨으며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타승할 수 있는 강위력한 군사력을 건설하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명령 일하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주체의 영군체계를 확립하신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건설 위업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업적입니다.

군대는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는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대가 이러한 사명을 다하자면 최고사령관의 명령 일하에 한결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는 군대는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이로부터 백두산 3대장군들께서는 군건설을 이끄시는 전 기간 사령관의 명령 일하에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영군체계를 확립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셨습니다.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체80(1991)년 12월 2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했습니다. 그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중대 정치지도원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먼저 전원회의 결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뜻깊은 교시를 주셨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명령 일하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주체의 영군체계를 확립하시여 군건설의 최성기를 마련하셨으며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타승할 수 있는 강위력한 군사력을 건설하셨다

> **≪어제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전체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일치한 의사에 따라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나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영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은 교시를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고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 일하에 하나같이 움직이며 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굳은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커다란 관심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서 전군의 주체의 영군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게 됐었습니다.

주체의 영군체계는 조선노동당의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군체계, 당의 영군체계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군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것은 대국상 이후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인민군대를 영원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튼튼히 꾸리고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근본 담보로 됐습니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군이 주체의 영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군의 주체의 영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주체84(1995)년 3월 11일 말씀과 주체85(1996)년 4월 7일 말씀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말씀들에서 당의 영군체계의 본질과 요구, 과업과 방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 안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 문제와 당의 영군체계를 세우는 문제는 다같이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문제로써 표현만 다를 뿐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당의 영도를 받아야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 역량이다. 다른 모든 단위와 마찬가지로 인민군대도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 인민군대가 당의 영도를 받아야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당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당이 없으면 사회주의 조국도 없고 인민군대로 없으며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전 유렵 사회주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녹아난 것도 당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된데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전 유렵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수정주의자들과 부르주아 복귀주의자들이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키고 당과 군대를 떼어놓기 위해서 군대의 비정치화, 군대의 비사상화를 제창해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와해되게 됐습니다. 특히 부르주아 복귀주의자들의 악랄한 반혁명적 책동으로 군대안의 정치기관들이 해체되고 군대에 대한 당적 영도가 거부되면서부터 군대는 혁명적 군대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백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아침에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것은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문제가 우리 인민의 운명과 사회주의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군의 주체의 영군체계를 확립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현명하고 정당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군의 주체의 영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인민군 각급 부대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군사 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실현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위원회의 직속 지도밑에 사업하는 것은 곧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의 영도체계, 영군체계를 세우기 위한 원칙적인 요구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안에서 당조적과 정치기관의 지위를 낮추려고 하거나 당의 영도를 거세하려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위원회의 직속 지도밑에 군사 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실현하는 것을 인민군대의 부대지휘관리 원칙으로 내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인민군대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들을 ******** 명백히 밝혀지고 군사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되고 그이의 유일적 결론에 따라 처리되는 정연한 제도와 질서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군건설의 최전성기를 마련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위대한 영장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4.19민중봉기가 남긴 교훈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　일 :안녕하세요.

사회자 : 해마다 4월이 오면 이 땅의 청년학생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정의와 애국의 일념으로 굳게 뭉쳐서 이승만독재정권을 거꾸러뜨렸던 잊지 못할 4.19의 나날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투쟁결의를 가다듬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4월항쟁이 남긴 교훈에 관해 되새겨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4월민중봉기는 그 어떤 파쇼폭압도 결코 자주성을 지향하는 민중의 진출을 막을 수 없고 또 단결된 민중의 투쟁은 그 어떤 파쇼의 아성도 짓부술 수 있다는 귀중한 역사적 의미를 남겼지 않았습니까.

오　일 :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60년 3.15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마산봉기를 도화선으로해서 폭발된 4월민중봉기에는 근 백만명에 달하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이 참여해서 이승만독재정권을 반대해 용감히 싸웠는데요. 그들은 ≪썩은 정치 물러가라!≫, ≪이승만은 물러가라!≫, ≪미국은 데모에 간섭하지 말라!≫, ≪통일만이 살길이다!≫고 목청껏 외치면서 국회의사당으로, 경무대로 물밀듯이 달려갔어요. 이렇게 되자 겁에 질린 이승만파쇼일당은 비상경계령위에 비상계엄령을 연발하는 한편 군대와 탱크까지 내몰아 최루탄과 실탄을 마구 쏴대면서 발악해 나섰습니다. 그러자 항쟁군중은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피흘리며 쓰러진 전우들의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 파쇼의 아성을 향해 돌진했고 마침내는 이승만독재정권을 거꾸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은 4월민중항쟁을 통해서 전민이 일어나 일치단결해서 싸운다면 어떠한 파쇼의 아성도 능히 쳐부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사회자 : 실로 단결된 민중의 힘이란 막강한 거죠. 그러나 4월 민중봉기는 이승만파쇼독재정권을 무너뜨렸던 그 승리를 고수하고 투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지 못함으로해서 피의 열매를 다른 친미주구에게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피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　일 : 오늘의 시점에서 그 역사적 교훈을 재음미해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것은 대중투쟁의 완전한 승리를 **하자면 반드시 노동자계급의 전위조직의 통일적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노동자계급의 전위조직은 대중투쟁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참모부, 다시말해서 변혁운동의 기관차라 할 수 있는데요. 전위조직은 대중에게 뚜렷한 투쟁강령과 구호, 그 실현을 위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해서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하며 광범위한 군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 민중봉기는 이런 주체적인 전위조직의 영도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노농대중을 위시한 보다 광범위한 대중이 참가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그리고 목적의식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으로 끝까지 전개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승만독재정권을 타도하는데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투쟁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투쟁에 주력을 담당해야 할 노동자, 농민대중을 견인해내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무너진 이승만정권의 무덤위에 참다운 민중민주정권을 세우지 못하고 새로운 주구에게 4.19의 열매를 찬탈당한 근본요인도 역시 주체의 전위조직의 영도가 없은데 있다고 하겠는데요. 당시 일부 각성이 부족하고 의식화되지 못한 봉기군중속에서 이승만정권을 타도한 것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다 이룬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성급하게 만세를 부르고 흩어지거나 심지어는 이른바 과도정부라는 것에 기대를 거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겠죠.

4.19민중봉기

오　일 : 옳은 말씀입니다. 4월민중봉기가 남긴 심각한 교훈에 관해 말할 때 미국과 매국세력에 대해서는 털끝만한 환상도 절대로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 반독재민주화투쟁만으로는 절대로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반드시 이 민주화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과 결합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환상이란 어디까지나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요구하는 대중투쟁과는 애당초 인연이 없지 않습니까. 환상에 사로잡히면 침략과 약탈을 생존방식으로 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본성을 똑바로 볼 수 없고 진짜와 가짜, 적아를 식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투쟁에서 실패를 면할 수 없는데요. 4.19민중봉기이후의 사례가 이를 웅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중의 투쟁기세에 질겁해서 이승만역도에게 하야성명을 발표케하고 하야시킨게 미국이였고 그리고 박정희역적을 사주해서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키게 한 것도 바로 미국이였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4.19봉기자들은 이승만독재타도만 외쳤지 그뒤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반미투쟁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 겁니다. 결과 4.19의 용사들이 피끓는 청춘과 귀중한 목숨을 내걸고 쟁취한 4.19의 열매를 미국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군사깡패에게 찬탈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거죠.

사회자 : 42년전 4.19민중봉기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조직의 영도가 있어야 하고 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변혁운동의 주력군이 대거 참여해야 대중운동이 승리할 수 있고 반독재민주화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승화시켜야 진정한 자주적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새 세상을 펼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슴깊이 새겨주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 결성됐고 오늘 반파쇼민주화투쟁과 반미자주화투쟁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 건 4.19민중봉기에서 찾은 심각한 교훈에도 바탕을 둔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한민전≫이 결성되고 그 영도하에 각계 민중이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건 4.19의 경험을 잘 살려나가고 또 그 피의 교훈의 견지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민중은 ≪한민전≫의 주위에 똘똘 뭉쳐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더욱 알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특히 우리 민중은 지금 이 땅에서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 반미반부시투쟁과 반이회창투쟁 그리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4.19와 같은 투쟁국면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4.19항쟁의 교훈에 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사회자 : 4.19민중봉기가 남긴 교훈은 대중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노동자계급의 전위조직의 통일적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한 미국의 식민지≪한국≫에서 반파쇼민주화투쟁은 반드시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고 하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8～19일

4.19민중봉기, 그 나날의 미국

우리 민중의 투쟁사에 한 페이지를 기록한 4.19민중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피로써 쟁취한 그날의 항쟁의 열매가 누구에 의해서 찬탈당했는가를 뼈아프게 되새겨보는 우리 민중의 가슴은 그 장본인인 미국에 대한 원한과 분노, 피의 외침으로 더욱 끓어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4.19를 통해 미국의 실체를 더욱 똑똑히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이른바 해방자, 원조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불법강점한 그날부터 미국은 우리 민중에게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만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민중은 4.19봉기 첫날부터 미국은 데모에 간섭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던 것입니다.

4.19항쟁으로 저들의 ≪한국≫지배에 종말을 고할 수 있음을 직시한 미국은 4.19민중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했습니다.

4.19민중봉기가 일어나자 당시 미국무장관이었던 **** **는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대중의 불만과 폭력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직접 중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대사 메카나기와 주한미군사령관 매독스는 사태수습에 직접 나섰고 미국무성은 수시로 변하는 정세를 분석해서 저들의 졸개들에게 내려보내주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 매독스는 워싱턴의 지령에 따라 4월 19일 오후 계엄령선포와 함께 탱크를 포함한 국군병력을 시위군중진압에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승만독재정권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고 이승만으로 하여금 행정책임자의 지위를 버리고 원수의 지위만을 갖는다고 성명을 내게 했고 이것이 실패하자 다시 당정치와 결연하고 대통령의 지위만을 시행한다고 발표케했습니다.

그러나 극악한 사대매국노이고 친미주구인 이승만역도에 대한 민중의 증오는 하늘에 닿았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의 투쟁에 질겁한 미국은 4월 26일 이승만역도를 하야시키는 것으로써 시민들의 투쟁을 무마시키고 독재체제붕괴를 막아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역도의 하야성명의 배후에는 이렇듯 미국의 범죄적 음모가 숨어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앙양된 민중의 투쟁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친미사대매국노인 박정희역도를 내세워 5.16군사정변까지 일으키게 했고 극악한 군사파쇼통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중의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4.19민중봉기를 계기로 미국이 썼던 해방자, 원조자의 탈은 완전히 벗겨졌고 미국은 자기들의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흉악한 침략자라는 것을 민중의 가슴속에 뚜렷이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4.19를 통해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고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종지부를 찍지 않고서는 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4.19가 남긴 피의 교훈은 20여년전의 광주사태를 거쳐 더욱 새겨졌습니다.

4.19민중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는 의연히 계속되고 있고 이로인해 우리 민중은 온갖 불행과 고통, 재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부시가 ≪악의 축≫망언을 거듭 줴치고 있고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작성된 계획에 따라 북에 대한 핵공격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한반도에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미국의 새로운 침략과 전쟁책동이 날로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좌시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시기 반미반전반핵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는 것은 우리 민중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여기에 민족을 미국의 핵전쟁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이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이 있습니다.

각계층 민중은 42년전 4.19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고 그날의 항쟁용사들이 못다 이룬 자주, 민주,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이 실패한 뒤에는 언제나 미국이라는 검은 악마가 마수를 뻗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늘도 한반도정세가 완화의 기미가 보일 때마다 정세를 긴장시켜서 대결국면에로 몰아가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악의 원흉인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자주도, 민주도, 통일도 어느 하나 성취될 수 없다는 걸 잊지 말고 반미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8~19일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책임자처벌, 보상 촉구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여성단체연합은 18일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인정과 책임자처벌,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특별보고관이 지난 98년 유엔인권위에 제출한 일본군대 성노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보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종군위안부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일치한 의사를 거부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군위안부범죄는 과거 일제가 감행한 범죄 가운데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의 하나였습니다. 일제는 관권, 군권을 동원해 근 20만명에 달하는 우리 나라 여성들을 강제연행해 황군의 성노리개로 섬겨바침으로써 그들의 정조와 청춘, 육체를 모조리 말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종군위안부범죄를 크게 범죄시하고 그에 대해 일본측이 사죄하고 보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우리 민족의 요구에 대해 여전히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에도 일본당국자들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느니 꾸며낸 비약이라느니 하는 구실을 내댔었습니다. 그후 종군위안부범죄에 국가가 관여했다는 걸 입증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발굴됐습니다. 일본당국은 더

이상 그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때문에 공정한 사회여론은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문제를 지금껏 방치해둔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해야한다는 정당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구찌지방재판소가 이남의 전 종군위안부 3명에 대한 보상을 일본정부가 지불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정부는 아무리 오그랑수를 써도 종군위안부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종군위안부문제들에 성실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집요하게 과거죄행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려고 책동하고 있는데 오늘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은 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은 국제관례이며 규범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행위는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시기 일제가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를 무조건 인정하고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하며 그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문제해결에 여전히 외면한다면 우리 민중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0일

한총련 이적성과 21세기

남북 화해 · 협력을 지향하는 시대에 이적성이란 말이 거슬리지만, ≪한총련≫이 현 실정법상 이적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고 조문문제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냉각되었을 때 ≪한총련≫의 평화통일운동은 적극화했고, 그 결과 1998년에 대법원은 그 제5기 의장 상고심 재판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확정했다. 이유는 ≪이북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해 선전 · 선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남적화통일 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사법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규정한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이라는 점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6.15 선언 이전에 정부가 적화통일안으로 간주한 연방제를 주장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 세계가 환영하고 지지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쪽 통일안인 연합제와 ≪낮은 단계≫라는 단서를 붙인 북쪽 통일안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명문화했다.

연방제통일안이 남쪽 사직당국에서 봐온 대로 적화통일안이냐, 세계사적으로 국가사회주의체제가 취약해져 가는 상황에서 북쪽만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책이냐, 실질적인 평화공존책일 뿐이냐, 20세기와는 다른 21세기적 통일방안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추이에 따라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다만 남북 한반도 주민은 물론, 세계인들의 큰 지지를 받았던 6.15 공동선언이 나온 뒤에는 남쪽 사직당국도 ≪연방제안은 곧 적화통일안이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일은 아니라 하겠다.

≪한총련≫은 6.15 공동선언 후 종래 주장했던 ≪연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 방안을 넘어 ≪6.15 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삼는다≫하고, ≪미제 반대≫ 등의 표현도 강령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남북 정부가 각각 상당한 기간 외교권 · 군사권 · 내치권을 그대로 가지는데 합의한 (≪순수≫ 연방제와는 다른)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근거로 한 6.15 공동선언 식 통일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우리 학생운동은 항상 시대적 · 역사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왔다. ≪4.19 공간≫에서 시작하여 군사독재시대까지는 반시대적 무력통일론 및 흡수통일론에 반대하면서 옳은 의미의 평화통일론을 수립하는 데 앞장섰다. 김영삼 정부 때와 같이 민간정부이면서도 평화통일정책이 벽에 부딪쳤을 때는 그것을 풀기 위해 몸부림치기도 했다. 6.15 공동선언에서 남 · 북 정부의 합의로 현실적 통일방안이 제시되자 종래의 ≪순수≫ 연방제 지지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민족 중 베트남은 전쟁통일 했고 독일은 흡수통일 했지만, 한반도의 경우 20세기에는 전쟁통일도 흡수통일도 되지 않았고, 통일문제는 21세기의 과제가 되었다. 21세기에도 20세기와 같은 전쟁통일 및 흡수통일 방법밖에 없을 것인지, 아니면 21세기적 방법이 새로 마련될 것인지 아무도 미리 단언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있다. 20세기적 전쟁통일이나 흡수통일 인식에만 한정된 기성세대가, 21세기적 평화통일을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은 분명 20세기 냉전시대의 민족인식 및 통일인식에 한정된 산물이지만, 통일은 이미 21세기의 과제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평화통일의 완성 과정을 담당할 세대는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만든 기성세대가 아니라 ≪한총련≫과 같은 새로운 세대들이다.

일제시대와 분단시대밖에 살아보지 못한 20세기 인간 기성세대가 그 민족인식 및 역사인식에 한정해서 만든 국가보안법 같은 것으로 평화통일시대를 담당할 ≪한총련≫과 같은 21세기 인간의 민족인식이나 통일방법론을 묶어두는 일은 불가능하다. 기성세대에도 그 불가능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있겠는데, 아는 경우가 더 우세할 때 역사는 순조롭게 흐르게 마련이다. ≪한총련≫을 이적단체에서 풀 것인가, 묶어 둘 것인가는, 기성세대가 21세기를 내다보는 전향적 민족사인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렸다고 하겠다.

강만길 상지대총장
인터넷 한겨레 2002/04/21

민족의 단결을 생각한다

남북제정당 · 사회단체 연석회의 54돌 기념식 열려

≪미국과 반통일세력에 의해 한반도의 엄중한 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지금 다시 민족대단결의 소중한 교훈을 안겨준 48년 남북제정당 ·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윤한탁 상임공동대표는 20일 오전 11시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선생 묘소 앞에서 열린 ≪남북제정당 · 사회단체연석회의 54돌 기념식≫에서 민족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기념식은 신창균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조영건 민주노동당 고문,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서경원 자통협 상임고문, 권오창 실천연대 반미자주위원회 준비위원장, 김수남 민족통일회의 상임의장, 홍석영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정책의원 등이 참여해 분단의 장벽을 넘어섰던 48년 남북제정당 ·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연석회의에 직접 참여했던 신창균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의 당시의 회고발언 후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기념의 ≪념≫의 한자가 지금 금, 마음 심 자인데 기념은 지금 다시 마음에서 결의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데 힘을 다하자≫고 공동선언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이어 서경원 자통협 상임고문의 ≪사람은 어느 때 가장 강한가≫ 라는 기념시 낭독 후 윤한탁 상임공동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민족의 이익앞에서 그 어떤 차이를 앞세우지 않고 단결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겨주었다≫며 ≪이 뜻을 오늘에 되살려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고 주장했다.

결의문 낭독 후 참가자들은 만세삼창과 함께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에 헌화를 하고 기념식을 마쳤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21

시민단체 선거 후보자 가시화

민노총-민노당 제휴, 단일 후보화 추대

지역시민단체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민주노동당에 무더기로 가입하는 등 지방선거 참여를 가시화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는 구미시장을 비롯한 6명의 후보를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시의원 선거에 출마시키로 결정했다.

구미시장 후보는 민노총 구미협의회 황준영(42) 의장을, 구미 제3선거구 경북도의원 후보는 김길용(42) 씨를, 시의원 후보로는 공단2동 최인성(31) 씨, 고아2지구 이용재(45) 씨, 진미동 황영호(37) 씨, 양포동 신영태(40) 씨 등을 내기로 했다고 구미협의회 측은 밝혔다.

구미협의회 황 의장은 ≪현실정치 어디에도 노동자와 서민의 아픔을 담아내는 정책이 없다≫면서 ≪민노총 구미협의회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오는 17일 민주노동당 구미지구당에 무더기로 가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의장은 이를 통해 ≪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대중적 힘을 결집,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현실 정치에 적극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주지역 노동자-시민단체 등도 이번 지방선거에 재야출신 단일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경주지구당 준비위원회 및 민노총 경주시협의회와 한국노총 경주지부, 경주민주청년회,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지방선거에 단일후보를 추대하는 등 선거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단일후보 추대 예정자는 경주지역 도의원 3선거구에 정태영(45 · 민노당 당원) 씨, 시의원(황성동) 한규업(37 · 민노총 경주시협 지도위원) 씨 등 2명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생활정치와 친환경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포항시의원 선거의 녹색후보로 대송면에 이동걸(40) 씨를, 우창동에 박창호(36) 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은 ≪시민단체 및 재야 같은 성격을 띠는 정당에서 나온 후보의 경우 기존의 썩은 정치를 타파하고 서민들의 권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막상 선거 결과를 보면 당선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오마이뉴스 2002/04/21

고이즈미 ≪야스쿠니 전격참배≫ 배경과 전망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지난 해에 이어 재임중 두번째로 21일 야스쿠니신사를 전격 참배하는 ≪깜짝 쇼≫를 벌였다.

이날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 언론들마저 ≪돌연 참배≫라고 표현할 만큼 기습적이고도 속전속결식으로 이뤄졌다.

여러가지 일본 국내외 분위기로 미뤄볼 때 올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여지없이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올해 5-6월의 월드컵축구 한일공동개최, 9월 중 · 일 수교 30주년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결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기에다 고이즈미 총리의 인기가 지난해와 비교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 점,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도 1985년 8월 15일 참배 후 이듬해 참배를 포기했던 점 등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재참배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였다.

특히 최근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제(大祭.마쓰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혀 적어도 봄에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휴일, 그것도 아침에 야스쿠니로 향했다. 그는 작년 8월 13일 이뤄진 참배 때와 마찬가지로 ≪내각 총리 대신≫ 자격으로 참배했으나, 헌화료 3만엔을 호주머니 돈으로 지불함으로써 참배의 ≪공.사(公.私)≫ 경계를 모호하게 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그가 이날을 참배일로 선택한데 대해≪(나라) 안팎에 불안과 경계를 안겨주지 않고, 진정한 마음을 담아 참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올해 8월 15일에 참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명한 점이다.

이는 고이즈미 총리가 8.15 참배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날 참배를 강행하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도 야스쿠니로 향하기에 앞서≪이날이 타이밍상 제일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대제에 참배할 것이라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면서 일본 유족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자, ≪8.15를 피하면서 유족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야스쿠니 봄 대제 참배로 방침이 급선회했을 가능성이다. 일본 유족회는 지난해 ≪고이즈미 총리만들기≫의 든든한 후원자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월드컵 공동개최 문제가 걸려 있어 설령 자신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더라도 크게 반발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이미 이달 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최신 일본사≫라는 고교용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했을 때도 한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적었던 전례를 고이즈미 총리는 ≪참고≫했을 지도 모른다는 분석이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9월에 중.일 수교 3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가을보다는 봄 쪽을 선택했을 개연성이 있다. 한창 중.일간의 관계가 무르익을 즈음인 9-10월에 야스쿠니에 갔다가는 양국관계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어쨌든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해에 이어 재차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봉안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를 강행함에 따라 당분간 한일, 중일관계가 냉각될 조짐이다.

문제는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둔 한국정부, 중일 수교 30주년을 목적에 둔 한.중 양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대응수위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고이즈미 총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일본 국민이 과연 이번 야스쿠니 참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을 보이느냐도 작년과 같은 ≪야스쿠니 파문≫의 재현여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일특파원
연합뉴스 2002/04/21

≪주5일 근무≫라는 선언적 문구로는 노동 현안 문제 해결 불가능

18일 노사정위원회 집회에서 보험 모집인 노조 이순녀 위원장은 ≪모험 모집인은 아파도 쉴 수가 없고 누가 죽어도 갈 수가 없다.≫며 ≪차별없는 세상에서 똑같이 대우받고 싶다.≫고 말했다.

보험 모집인 노동자들에게는 주5일 근무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이들은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이순녀 위원장의 설명. 그러나 이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보험 모집인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정규직이 된다면 생리휴가, 연월 차, 시간외 노동 등의 문제는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지금 노사정위에서는≪주5일 근무≫ 논의 뿐 만 아니라 특수고용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근로자냐, 근로자에 준하는 자냐, 단결권을 인정할 것이냐, 노동 3권이냐, 2권이냐 등 의견이 분분한데도 보험 모집인 노동자들은 여기에서조차 제외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역시 같은 집회 현장에서 만난 장 문기 건설운송 노조 위원장은 ≪우리에게 주5일은 꿈만같은 이야기≫라며 ≪우리의 요구는 주5일이 아니라 일요일 하루라도 쉬게 해달라는 것≫이라 말했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농성중일 때도 장 문기 위원장과는 주5일 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장 문기 위원장에게 물어본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있어 주5일 근무제는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죠≫라며 한마디로 ≪꿈같은 이야기≫라는 결론지었다. ≪우선 노동자성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가 두번째 대답이었다. 여전히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대답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레미콘 노동자들에게는 그 어느 사업장 보다 주5일 근무제를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주5일 근무제는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제발 일요일만이라도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5일 근무제는 정말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사용자 그 새끼들이 조건없이 주5일 근무 해주겠느냐?≫는 것이 장 위원장의 반문이다. 사업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요일은 커녕 시간외수당이나 야근수당 같은 것은 결코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실에 맞지 않는 주5일 근무는 천천히 하더라도 일요일날 휴일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이나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건설운송 노동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란다.

장 위원장의 말에는 정부와 재계가 주5일을 추진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담겨 있었다. ≪결코 자본은 손해 보면서 주5일 근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자본의 논리를 지적한 것이다.

≪주5일근무≫가 노동자들의 염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언적 문구만으로 전락 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조건에서 ≪주5일 근무≫로 노동문제 현안해결은 불가능 해 보인다. 그렇기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모든 노동자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일이 없는 자본의 주5일 근무 추진 앞에서 민주노총이 내건≪중소영세비정규 희생없는≫이라는 주5일 근무에 관한 단서 조항은 초라해 보인다.

참세상뉴스 2002/04/19

노사정 합의안, 근로조건 후퇴 명백

대구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강력 반발

지난 19일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각계 사회단체가 최근 노사정 위원회의 주 5일 근무제 도입 합의와 관련하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20일 대구지역 노동자, 대학생 등 약 2백여명은 근로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등을 요구하며 대구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먼저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 이정림 의장은 ≪현재 노사정 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일 따름이며 기간 산업 해외매각의 경우, 주권을 파는 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투쟁을 벌이자≫고 대회사를 발표했다.

이어 대구노동운동연합 김찬수 대표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데 김대중 정권은 외세의 눈치를 보며 철도, 난방, 가스, 발전 등 국민의 생명과 결부된 기간산업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의 뜻을 전했다.

또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지금껏 노동자와 민중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노동시간 단축을 왜곡하고 있는 행위이며 언론 또한 그에 발맞춰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노사정 합의와 관련하여 영남대 병원노조 한 관계자는 ≪발전노조 파업 이후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이 높아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리휴가 및 주급 무급,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명백히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을 반발하며 지난 17일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했으며 노사정 합의안이 강행될 경우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4, 5월 총력 투쟁을 돌입할 계획이다.

김성헌기자
유뉴스 2002/04/20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2)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6.15 공동선언의 채택이라는 통일정세의 질적 변화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있어서 남측의 친미예속정권은 변함없이 청산의 대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의 채택은 친미예속정권도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공동전선에 견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의 착오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의 친미예속정권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중대한 착오였습니다. 그 논문에서 우리들은 전술적 공동전선과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였습니다. 북측의 조국통일역량과 남측의 친미예속정권 사이에서는 전략적 통일전선(민족통일전선)이 아니라 전술적 공동전선이 형성된다고 해야 옳습니다. 이 점을 바로 잡습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은 친미예속정권을 민족민주전선의 청산대상으로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그 정권이 민족통일전선의 견인대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하였습니다. 친미예속정권을 청산대상으로 보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만일 그 동일한 대상이 통일전선으로 견인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친미예속정권을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기까지 함께 가야할 전략적 동반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에 친미예속정권을 청산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민주전선의 전략과 친미예속정권까지도 전략적 동반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은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이 성립되었던 당시의 혁명정세와 통일정세는, 아무도 친미예속정권이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동반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었던 첨예한 대결정세였으므로, 그 기성이론이 인정했던 가능성, 다시 말하여 친미예속정권까지도 통일전선의 전략적 동반대상으로 될 가능성이란, 현실적 가능성이 아니라 순전히 이론적 가능성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이 오늘의 변화 · 발전된 통일정세를 수 십 년 전에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는 시대적 한계를 인정합니다.

요즈음 우리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활동가들은, 친미예속정권이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 일방이므로 그 선언을 파기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 정권을 전략적 통일전선의 견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만일 그 선언을 파기할 때는 청산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도 또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전선에 전략적 동반대상으로서 포함되는 대상은, 이론적으로 볼 때 절대로 6.15 공동선언을 파기할 수 없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동반대상은 반드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전략적 동반대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대상이 그 선언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이 해결된, 그리하여 오늘의 통일정세에 맞는 민족통일전선의 전략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전술적 공동전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친미예속정권을 청산대상이냐 아니면 전략적 통일전선의 대상이냐 하는 과거의 관점 대신에, 청산대상이냐 아니면 전술적 공동전선의 대상이냐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술적 공동전선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술적 공동전선은 상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자는 목적에서 형성되는 전술적인 전선이 아닙니다. 전술적 공동전선이라는 개념에서 강조점은 ≪전술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공동전선≫이라는 말에 찍혀 있습니다. ≪통일전선≫이라는 개념에는 상이한 존재들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통일되어 끝까지 함께 투쟁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지만, ≪공동전선≫이라는 개념에는 상이한 존재들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통일되지는 않으면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술적 공동전선은 청산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략적 동반대상도 아닌 새로운 대상과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손을 잡는 공동전선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공동전선은 6.15 공동선언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최소의 필요조건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손을 잡을 수 있는 공동전선입니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을 파기하는 경우 전술적 공동전선도 파탄되게 됩니다. 친미예속정권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더라도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동반대상으로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술적 공동전선은 우리 민족민주운동과 친미예속정권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북측의 조국통일역량과 친미예속정권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친미예속정권은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에게는 전술적 공동전선에 견인하는 대상으로 되고,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는 전술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됩니다. 전술적 공조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는 북측의 조국통일역량과 친미예속정권 사이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북측의 조국통일역량과 남측, 해외의 통일지향세력들 사이에서 전략적 통일전선(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에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북측의 조국통일역량과 남측 정권 사이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형성되고 북측의 조국통일역량과 남측의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들 사이에서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됨으로써 6.15 공동선언을 실현해 가던 말던 상관없이, 만일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측 정권을 청산하려는 정권퇴진투쟁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 정권과 전술적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목적은, 정치적 파산위기에로 밀려가고 있는 남측 정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민족 전체의 조국통일역량을 그 전선으로 결집시켜 결국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자는 데 있습니다.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전민족적인 조국통일역량을 전략적 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우고 친미예속정권까지 전술적 공동전선으로 견인하면서 전개하고 있는 역사적 대사변을 민족통일전선의 형성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북측은 친미예속정권을 타도대상이라고 변함없이 믿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 정권을 상대로 일시적인 기만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술적 공동전선은, 북측이 친미예속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타도투쟁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정치협상을 벌이는 척 하는 기만전술을 펴는 것이 아니라, 친미예속정권에게서 최소한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공동전선으로 견인하는 것입니다.

적대관계에 있던 존재를 공동전선의 견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존재가 지니고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입니다. 만일 그 가능성마저 없다면 전술적 공동전선은 원천적으로 형성될 수 없으며, 적대관계만 남게 되고, 타도와 청산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 협상의 기만전술을 동원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그 최소한의 가능성을 ≪화해 · 협력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통일전선사업은 존재가 아니라 속성을 중시합니다. 이것은 김철수 동지가 비판한 것처럼 ≪관념적 조작의 극치≫가 아니라 통일전선사업의 기본원리입니다. 이를테면, 자본가 계급은 우리 민족민주운동과 양립할 수 없는 적대세력, 청산대상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지만, 남측의 통일전선인 민족민주전선에 민족자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자본가 계급의 성원들 가운데는 반제민족적 속성이 있는 개별적 존재(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 지적했던 ≪양심적인 민족자본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를 혁명의 편에 전취한다≫는 통일전선 기성이론의 논리는, 자본가라는 계급적 존재가 아니라 자본가가 지닐 수 있는 반제민족적 속성을 중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통일전선을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김대중 정권에게서 친미예속성만을 본다면 그 정권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야 하지만, 그 존재가 지니고 있는 다른 속성은 전술적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는 것은 6.15 공동선언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김철수 동지는 ≪한국변혁운동은 결코 사대매국정권과 손잡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들이 민족민주운동과 김대중 정권이 통일전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우리들은 민족민주운동과 친미예속정권이 통일전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친미예속정권과 ≪손을 잡는다≫는 모호한 말로 표현할 게 아니라 통일전선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쟁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에서 지적했던 대로, 화해·협력성을 지닌 친미예속정권과 전술적 공동전선을 하는 쪽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아니라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입니다.

만일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화해·협력성을 지닌 친미예속정권과 전략적 통일전선을 하게 되면 그러한 정권을 전략적 동반대상으로 인정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지역혁명의 전략은 파탄되고 맙니다. 친미예속정권을 전략적 통일전선 안에 포괄되는 동반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전망 자체를 부정하는 우경기회주의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우리들은 김대중 정권을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전략적 통일전선으로 견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김대중 정권과 전술적 공조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전술적 공조는 전략적 통일전선과 전혀 다른 개념일 뿐 아니라, 전술적 공동전선과도 구별되는 가장 낮은 차원의 관계로 됩니다. 전술적 공동전선이 형성되려면 공동의 목적이 합의되어야 하지만, 전술적 공조가 실현되는 데는 공동의 목적이 합의될 필요는 없고 제각기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행동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공동의 보조만 맞출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화해·협력성을 비난하면서 6.15 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에 감히 도전해 나서고 있는 국정원과 검·경찰 ≪공안≫집단, 이회창 패거리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남북(북남)의 화해·협력마저도 반대하는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을 고립·타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민주운동과 김대중 정권은 서로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공동의 보조를 맞출 수 있으며, 따라서 전술적 공조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술적 공조는 남북(북남)의 화해·협력마저도 반대하는 반통일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의 시기에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그 중대한 시기에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개혁세력과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국정원과 검·경찰 ≪공안≫집단, 이회창 패거리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을 고립·타격하는 투쟁에 자기의 동력을 집중해야 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개혁세력과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반통일세력의 존립기반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에 자기의 동력을 집중해야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전술적 공조는 이러한 집중타격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과 전술에만 관성적으로 집중하고 있었고, 당면 투쟁의 의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을 고립·타격하는 투쟁전술(전술적 공조의 전술)이 나올 수 없었으며 투쟁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5월에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을 ≪긴급토론자료≫로 발표한 까닭은 그러한 긴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집중타격점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동력을 분산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사이에, 6.15 공동선언 자체를 반대하는 국정원과 검·경찰 ≪공안≫집단, 이회창 패거리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이 되살아나 날뛰게 되었으며, 남북(북남)의 화해·협력을 추진해왔던 집권세력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의 친미예속정권을 어렵사리 견인하여 형성되었던 전술적 공동전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과 해외의 통일지향세력들을 묶어 세우는 전략적 통일전선도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측의 통일지향세력들에 대한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의 집중공격을 받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기의 기회만을 노리며 도사리고 있던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은 제철을 만난 듯이 기어 나와서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전략적 통일전선을 파괴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집중타격의 호기를 놓치고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전세가 뒤집힌 것입니다.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통일정세의 질적 변화 속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남측에서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을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결집시키는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당면임무에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라고 부릅니다.

지역통일전선은 남측에서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따르는가 아니면 반대하고 외면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전선입니다. 따라서 남측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은 남측의 민족민주전선보다 낮은 수준의 전선입니다.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형성된 지역통일전선이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에 의하여 형성된 민족민주전선보다 높거나 대등한 수준의 전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족민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은 성격과 임무가 서로 다른 전선이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겹쳐지는 부분집합에 대해서 우리들은 높은 수준의 전선역량이 낮은 수준의 전선역량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동지는 주동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말을 ≪지도한다≫는 말로 대체하면서 전선이 다른 전선을 지도하는 것은 ≪변혁운동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조직원리상으로도 그릇된 견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민족민주전선(통일전선조직의 이름)은 신애국동맹이라는 낮은 수준의 통일전선조직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남측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지역통일전선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우리들의 생각은, 민족민주운동이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을 부단히 확대·강화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을 확대·강화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통일전선을 확대·강화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남측의 통일지향세력들을 6.15 공동선언의 강령적 기치 아래 총결집시키는 조직·정치사업만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감히 부정하려는 국정원과 검·경찰 ≪공안≫집단, 이회창 패거리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을 고립·타격하는 전투적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에 속해 있는 구성부분이므로 지역통일전선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곧 민족통일전선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됩니다.

민족통일전선을 주도하는 것은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입니다. 그리하여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의 다양한 정당, 사회단체들과 직접 접촉하고 교류하고 있지만, 남측 지역에서 각이한 조국통일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우는 사업과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을 고립·타격하는 전투적 임무는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직접 남측 지역에 들어와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측 지역에서 조국통일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워 민족통일전선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주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김철수 동지는 ≪사물현상의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내적 원인이며 외적 원인은 내적 원인을 통하여 작용한다≫는 ≪철학원리≫를 적용하여 조미관계의 변화·발전과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관계문제를 해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미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관계를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의 관계로 해명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있어서 조미관계의 질적 변화가 외적 원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조미관계의 질적 변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민족 전체와 미 제국주의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며, 조선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민족해방혁명의 최대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반미자주화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오늘, 그 투쟁의 대상이며 민족민주운동의 주적인 미 제국주의세력과 우리 조선민족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어찌 이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에서 발생한 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조미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인식할 때,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국교수립)을 실현하는 비본질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한다거나, 또는 북측의 혁명역량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자기의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체제방어전에서 승리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러한 이해와 해석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조미관계의 변화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외적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미관계의 변화와 발전이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승리국면은 지금 막 전개되기 시작한 진행형이며 아직 완승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머지 않아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혁명정세는, 조선민족의 민족해방혁명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적 표현 대신에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진행형의 새로운 표현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조미 두 나라 사이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총포성 없는 대결전≫에서 조선이 승리를 거둔 것은 전술적 승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승리, 곧 민족해방혁명의 최후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북측의 혁명역량은 미제를 대상으로 하는 민족해방혁명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국면을 열어놓은 것이며,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하는 민족해방혁명을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반미자주화투쟁이 적극 방조하게 되면 미군은 철거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제시하고 있는 혁명정세 인식의 핵심내용이며, 민족해방혁명의 최후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혁명적 낙관주의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민족해방의 과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고 있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만일 이러한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을 ≪전형적인 북미 결정론의 편향≫이라는 모호한 말로 대체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정세인식의 심각한 오류로 됩니다.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이 지금 우리의 취약한 민족민주운동역량이 방조할 여지가 없는 조건에서 북측의 혁명역량에 의하여 거의 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해서, 그 질적 변화가 우리 민족민주운동과 별로 상관이 없는 외적 원인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우리끼리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반미자주화투쟁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한 판단입니다. (내일 계속)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11월 6일